

전남도, 청년 핵심리더 육성 속도낸다

지역발전 마중물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2기 개강 김영록 지사, 지방시대 실현 위한 청년 역할 강조

전남도는 지난 10일 목포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청년 핵심 리더를 육성하는 제2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개강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강식에는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회 운영위원장, 조옥현 교육위원장, 박문욱 도의원, 소영호 목포부시장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광양 청년밴드의 축하공연, 하상욱 시인의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다' 명사 특강, 차영수 위원장의 축사, 김영록 지사의 전남도정 방향과 전남의 잠재력 소개 및 소통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소통간담회는 제2기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분야 지역 청년과 함께 ▲지역 장년층과 MZ세대 간 갈등 문제 ▲전남 청년의 바람직한 미래상 ▲전남 청년 정책과 시대정신 등에 대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토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박재강 교육생 대표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의 역할과 청년 리더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며 "청년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방향을 소개한 후 소통간담회를 주재하며 "청년이란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라며 "지역 고유의 강점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아 청년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민선 8기 김영록 지사 역점시책으로 시작된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지역을 선도할 청년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출범식과 함께 제1기 교육생 80명을 배출했다. 수료생 모두 '청년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돼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2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2회 차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의 '챗지피티(GPT)로 바라본 사회현상의 변화', 김태훈 칼럼니스트의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3회 차 부산UN평화기념관 현장 학습 ▲4회 차 최태성 EBS 한국사 대표강사의 '호남 역사를 통해 보는 평화의 가치' 강의로 오는 7월 22일까지 진행된다. /김재정 기자



지난 10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도지사-청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청년 리더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챗 지피티' 활용 복지서비스 활성화 모색

전남사회서비스원-도의회, 28일 목포서 전남복지포럼

(재)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목포 CGV 평화광장에서 챗지피티(GPT)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10회 전남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챗지피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방안을 살피고 이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성국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인공지능지원센터 센터장이 '챗지피티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 김경백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김해준 전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용태희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x2yb6kr5m>)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강성희 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포럼에선 챗지피티가 복지 현장과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 '취약지 개조사업' 전국 최다 선정

29개소 국비 435억 확보...살기좋은 농촌 조성 박차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선 전국에서 134개 마을이 응모했으며 농식품부는 대면평가를 통해 108개소를 선정했다. 전남에선 29개소(전국 26.8%)가 선정돼 국비 435억 원을 확보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필요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

식 공모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빈집·노후주택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한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해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선정된 29개 마을은 2024년부터 4년간 개소당 15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국내 출장비 집행잔액 과다"

박희율 시의원 "예산 불용=소극행정" 지적

광주시 공무원 출장비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출장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출장비는 부서별 단위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원수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행정운영경비로 나뉜다. 전체 실·국 일반운영비의 경우 545개 사업 예산 19억9천38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억6천466만 원(38.4%),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1천501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8천417만 원(31.1%)이다. 총 예산 29억540만 원 중 10억4천883만 원(36.1%)이 불용 처리된 셈이다. 특히 일반운영비 전액 불용 사업은 52개 사업 7천444만 원, 행정운영경비 전액 불용 부서는 5개 부서 4천113만 원에 이르는 등 총 1억1천

558만 원은 한 톨도 집행되지 않았다.

박희율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국내 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것은 소극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년도 답습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행정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주민자치연합회 총회...김명기 대표회장 취임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총회 및 회장 취임식이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무

장 시의회 의장, 시의원, 임택 동구청장,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임원 및 97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경과 보고, 이임사·취임사, 축사, 강기정 시장의 시정 현안 공유를 위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는 97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다.

연합회 신임 회장단은 김명기 대표회장, 김용삼·김장열·김동수·전창현 공동회장, 김대영 사무총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4년 2월 28일까지 1년 간이다. /박선강 기자

도, 순천시 6·10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

6·10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광주·전남 기념식이 지난 10일 순천부림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렸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민주로(路), 함께 걸어온 길, 다시 가야할 길'을 주제로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이 주관했다.

행사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남도의원, 도민,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7합창단의 합창, 기념사, 축사,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인상' 수여,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6년 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열사의 삶을 되새기고, 현 시대와 호흡하며 민주로(路) 걸어온 길을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운 민주열사·애국 시민들을 기억하고 6월항쟁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남도는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고 도민 모두 행복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남도의원, 도민,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7합창단의 합창, 기념사, 축사,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인상' 수여,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정 기자

아마가세 / 후쿠오카 / 기타큐슈 / 삿푸

일본 규슈 골프여행 2박 3일(54H)

8명 이상 출발 가능 | 항공은 에어부산 OR 진에어(부산/인천 출발)

899,000원 부터~ (기사&가이드 팀 4만원 별도)

무안 출발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양국 정부 인허가 조건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가격이 다르오니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 이사 **최수환**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 제 100-000-2023 0227 3586호

◆ 공동조건: 여행경비는 1인 기준, 1억원 여행자보험가입, 골프54H, 전 일정 식사 비용(중식 제외), 숙박비 ◆ 최소출발인원: 8명 ◆ 사용 골프장: 삿푸노리 G.C., 아마가세 C.C.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불포함 사항: 국내수송, 기사 가이드팀별도, 락커비, 클럽렌탈비, 여권, 개인경비, 골프캐디 ◆ 상의요금은 날짜 및 인원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용호텔: 아마가세 유리 료칸(天瀾瀾里旅館)

조이투어
Tel.1522-1901